

## 「리틀 기딩」 그리고 “블로써 블로부터”

엘리엇의 시에는 시간이나 역사라는 용어가 흔재되어 빈번히 등장하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엇이 상용하는 시간이나 역사는 흔히 생각하는 ‘역사’가 아니라 구속(救贖)적인 역사라는 사실이다. 엘리엇은 『네 사중주』(*Four Quartets*)의 첫 번째 시 「번트 노턴」(“Burnt Norton”)에서 “만일 모든 시간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모든 시간은 구속 받을 수 없다(If all time is eternally present / All time is unredeemable)”(ll. 4-5)라고 진술하고, 『네 사중주』의 마지막 시 「리틀 기딩」(“Little Gidding”)에서는 “역사 없는 백성에게는 구속도 없다(A people without history is not redeemed)”(ll. 233-34)고 하면서 시간 내지 역사와 구속을 밀접하게 관련짓고 있다.

엘리엇의 시에 등장하는 역사는 ‘구속적(救贖的) 역사’이며 이 구속적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역사 개념과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속’(απολύτρωσις, redemption)이란 죄인이나 노예를 “값을 주고 구속, 방면, 해방 (redemption, release, or deliverance of the payment of a price)”(Reinecker & Rogers 356) 하는 것을 의미한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써 그 짚값을 치르고 죄인을 죄인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처럼 구속적 역사는 일반적인 역사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하여 피를 흘림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것을 시인하는 역사를 지칭한다. 따라서 엘리엇의 시에 등장하는 “역사”는 일반적인 학문의 “역사”와 다른 기독교적인 구속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된다.

보델센(C. A. Bodelsen)은 엘리엇의 시간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그 첫째 형태는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의 혼돈 상태에 있던 “무정형의 시간(amorphous time)”으로서 이는 구조나 방향이 없는 시간이라는 보았다. 두 번째는 “인간의 시간(human time)”으로서 이는 앞의 “무정형의 시간”과 대조적으로 과거 · 현재 · 미래로 구분되는 시간 개념으로서 인간의 경험 및 심리와 관련을 맺고 있는 시간 개념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간 개념은 “신의 시간(divine time)”으로서 이것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벗어난 무시간적 개념이며, 이는 신의 신비에 가까워지는 영원한 시간을 의미한다(36). 보델센이 지적한 이러한 신의 시간은 『네 사중주』의 마지막 시인 「리틀 기딩」에서 완성된다.

인간의 시간을 무정형의 시간에서 새롭게 복원시켜 신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이다. 스가랴 선지자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3장 6절)라고 할 때 인류 역사의 모든 회복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神)인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뜻이다. 헬렌 가드너(Helen Gardner)가 「리틀 기딩」의 주제를 “성령”이라고 지적한 것은(160-184) 성경의 이런 내용과 부합한다. 결국, 역사를 완전히 복원시키는 분은 “성령님”이다. 이제 본고에서는 신의 시간에 해당하는, 이 복원의 역사를 중심으로 시간과 이미지를 고찰할 것이다.

복원된 역사는 역사적인 장소와 관련되고 여기서 시간은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복원이 장소를 통해 이루어짐을 『네 사중주』의 마지막 시인 「리틀 기딩」에서 살펴볼 수 있다. 「리틀 기딩」에서 시인이 찾아간 곳은 영국의 한 교회당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엘리엇에게 있어서 역사는 일반 역사가 아니라 구속적 역사이기에 엘리엇의 시에서 역사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지닌다. 엘리엇이 『네 사중주』의 제목으로 사용한 지명은 시인 자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곳일 뿐만 아니라, 단순한 과거의 장소를 넘어 우리가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장소이다. 시간은 장소와 관련되며, 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시간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영적인 시간으로 바뀐다. 우리는 결국 장소를 통해서 역사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거기서 탈피하게 된다(George Williamson 206). 달리 말하면, 역사가 영적인 것이므로 역사가 없으면 갱신이나 복원도 없다. 결국, 역사를 통하여 갱신이 있고 복원이 일어나는 것이다.

역사는 노역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다. 보라, 지금 저것들, 얼굴들, 장소들이  
힘껏 그것들을 사랑하던 자아와 더불어 소멸하고,  
새로운 형태로 갱신되고 변형됨을.

History may be servitude,  
History may be freedom. See, now they vanish,  
The faces and places, with the self which, as it could, loved them,  
To become renewed, transfigured, in another pattern. (CPP 195)

역사는 새로운 형태로 “갱신되고 변형될(To become renewed, transfigured)” 때 우리의 삶과 함께 갱신되고 복원될 수밖에 없다. 복원되기 위해서 역사는 반드시 어떤 장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야 한다. 이제 시인은 패리(Farrar)가 신앙공동체를 이끌던 과거의 예배당, 즉 “기도가 유효했던 이곳으로 / 기도하러 온 것이다(You are here to kneel / Where prayer has been valid)”(CPP 192). 이곳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이고, 기도를 드렸던 곳이므로 시간이 바뀌어 “죽은 자의 통화는 / 산 자의 언어 이상으로 혀에서 불을 뿜을 것(the communication / Of the dead is tongued with fire beyond the language of the living)”(CPP 192) 이다.

이것은 역사의 복원이고, 역사의 복원이 일어나는 이곳은 영국이면서 동시에 더 이상 영국만이 아니며, 한 번도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존재하는 곳이다. 『네 사중주』의 각각의 시인 「번트 노턴」(“Burnt Norton”), 「이스트 코우커」(“East Coker”), 「드라이 샬베이지즈」(“The Dry Salvages”) 그리고 「리틀 기딩」(“Little Gidding”)은 엘리엇의 생애와 밀접히 관련된 역사적 장소이면서 역사를 초월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앨런 마샬(Alan Marshall)은 엘리엇의 시에 등장하는 장소들, 그중에서 특히 “영국”은 그의 시에서 “지리적인 의미 이상의 신화적 의미 (more mythology than geography)”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함으로써 이에 동의하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만일 엘리엇이 영국으로 귀화하지 않았다면 그의 시는 지금과는 상당히 달랐을지 모른다고 주장한다(96-97).

무시간의 순간과 교차하는 이곳은

영국이면서 아무 장소가 아니고, 전혀 없던 일이면서 언제나 있는 일이다.

Here, the intersection of the timeless moment

Is England and nowhere. Never and always. (CPP 192)

‘사후성’(事後性, Nachlichkeit)의 논리처럼 이제 복원된 역사가 원인이 되어 이전의 장소를 새롭게 변형하는 일이 발생한다. 로고스 중심주의가 원인에서 결과로 진행되는 인과율의 논리라면 정신분석학의 “사후성”의 논리는 원인이 결과에 의하여 재해석되는 것처럼, 복원이 일어난 이곳은 장소와 비장소, “존재(being)”와 “비존재(non-being)”가 함께 존재하는 역설이 발생한다. 이곳은 특정한 장소이면서 더는 장소가 아니고, 존재하는 듯하면서 더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이다. 시인이 찾아간 곳은 자신이 출발한 장소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출발한 장소가 더 이상 아니다. 이처럼 복원된 역사는 일반적 논리를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설이 발생한다.

복원된 역사의 현장에는 항상 최초의 흔적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가 찾아간 곳은 영국이면서 더는 영국이 아니다. 이처럼 복원된 역사에는 원래 형태의 완전한 탈바꿈 이라기보다는 그것의 변형이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복원은 부분적이 아닌 완전한 복원이고 인간으로 말하면 완전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케네스 폴 크래머(Kenneth Paul Kramer)가 시의 “패턴은 새로우면서도 항시 이전 운동의 메아리를 지니고 있다(the pattern... is fresh yet contains echoes of previous movements)”라고 지적했듯이(20) 이처럼 엘리엇의 시에 나타난 복원에도 최초의 모습이 남아 있다.

성경의 종말 역시 태초의 세계와 무관한 세상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이 묘사하는 새로운 세상은 최초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복원되어 하늘에서 내려온다. 성경이 말하는 종말(End-Zeit)이란 태초(Ur-Zeit)에 “그 이상의 것”이 덧붙여져 태초의 세계가 가장 완벽하게 회복된 것을 말한다. 성경은 현재 세상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광경을 묘사하면서 그 주위의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복원된 역사가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재림 시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모습이 이전 에덴동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과 같다. 에덴동산에도 4개의 강이 흘렀고 에덴에서도 동일하게 온갖 기화요초(琪花瑤草)가 만발해 있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에덴에서는 동산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반해 새로 복원된 세상에서는 생명나무만 있어서 인간에게 “다시 저주가 없으며”(요한계시록 22장 3절) 눈물이나 고통이 없다(요한계시록 21장 4절).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이전에 무질서와 혼돈을 잉태하던 바다도 완전히 사라진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요한계시록 21장 1절).

「리틀 기딩」에서도 같은 패턴이 유지되어 결국 영국은 이 세상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형태가 복원된 새로운 세상을 암시한다. 더불어 이처럼 복원된 새로운 세상에는 이전 세상의 모든 부정과 거부가 제거되었음을 시사한다. 같은 맥락에서 윌슨 나이트(Wilson Knight)는 엘리엇의 작품을 “죽음과 생명”이라는 모티프를 가지고 분석하면서 엘리엇이 자신의 시에서 “성경에 나타나는 전통적 색깔”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나이트의 이 말은 결국 위에 지적한 대로 역사의 복원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엘리엇의 시가 셰익스피어나 단테처럼 “어둠의 비전”에서 “천국의 광휘로의 진전”을 제공하는데, 이는 결국 죽음의 구약에서 출발하여 승리하는 인생의 신약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지적한다(374).

복원된 역사는 일종의 계시적 사건으로 여기서 인간의 구속은 완성된다. 성경의 구도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진전하듯이 엘리엇의 시에도 역사의 변형이 일어난다. 엘리자베스 드루(Elizabeth Drew)는 이 시를 “역사 의미의 계시로서의 시간”이라고 지적하는데(146) 이는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복원된 역사란 개념과 거의 같다. ‘계시’(ἀποκάλυψις, revelation)란 기독교적인 용어로서 “숨겨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가리킨다 (Reinecker & Rogers 811).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의인으로 구속되는 것은 성경이 강조하는 복원된 역사의 절정이다.

이런 복원된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결단이 요청된다. 이제 작열하는 불이 대기를 부순다. “불로써 불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어느 불솎을 선택하느냐만 남았다. 결국, 오순절에 “불같이” 임한 성령님의 불에 의해서 이 절망의 불길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느 불솎을 택하는가에 달려 있다.

비둘기가 내려오면서 작열하는  
공포의 불길로 대기를 부순다.  
그 불길에서 혀가 선포한다  
죄의 과오로부터의 해방을.  
오직 희망이나, 그렇지 않으면 절망이나는  
불로써 불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이 불솎을 택하느냐, 저 불솎을 택하느냐에 있다.

The dove descending breaks the air  
With flame of incandescent terror  
Of which the tongues declare  
The one discharge from sin and error.  
The only hope, or else despair  
Lies in the choice of pyre or pyre—  
To be redeemed from fire by fire. (CPP 196)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인간세계에 내려오심으로써 복원된 역사가 이루어진다. 여기서 엘리엇은 독일의 폭격기를 비둘기라고 지칭하여 죽음을 가장 온유한 성령님으로 대치하는 탁월한 수사적 기교를 보여주고 있다. 비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 머리에 임하신 새로서 성령님을 상징한다(마태복음 3장 16절). 비둘기의 온유한 성품이 성령님을 가장 잘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제 이미지는 이중성을 띠면서 죽음의 불길과 성령님의 불길로 제시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 상공을 날며 작열하는 불길을 토해내던 독일 공군의 폭격기는 이 불길에서 구원받기 위해 인간의 선택을 기다리는 성령님의 불길과 중첩된다. 여기에서 엘리엇이 상용하는 역설이 또다시 등장한다. 독일 폭격기가 연일 런던 상공에 투하하는 죽음의 불길을 오순절 날 임한 “생명의 성령”<sup>1)</sup>의 불길과 중첩함으로써 죽음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1)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여 성령과 생명을 연결 짓고 있다.

바꾸어 놓고 있다. 엘리엇의 역설적 시학은 이처럼 죽음 한가운데서 생명을 끄집어 내고 있다. 코르넬리아 쿡(Cornelia Cook)은 여기서 “보응의 모티프가 구속의 신학 안에서 변형”되도록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경 이미지를 찾아내고 있다(91). 런던 상공에서 폭격으로 투하되는 죽음의 불은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의 불과 중첩되고, 이 죽음과 생명의 순간에 크로노스의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형, 여기서 보델센이 명명한 신의 시간이 완성된다.

시간이 완전히 복원되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지금까지 서로 간에 진실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했던 언어가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게 되는 것이다. 엘리엇이 방문한 예배당은 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장소이고, 기도가 있었던 이곳은 시간이 구속되어 “죽은 자의 통화는 산 자의 언어 이상으로 허에서 불을 뿜을 것”이다.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은, 바벨탑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다가 그 형벌로 언어가 “혼잡(confused)”해져 인류가 나누어진 뒤(창세기 11장 1절-9절) 단절된 “인간의 언어가 회복”되고 새로운 변형이 시작되는 때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의 말을 알아들었다는 사실이다. 사도행전 2장 5-8절은 “...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이뇨” 라고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탑의 범죄가 오순절의 성령강림으로 완전히 복원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죽음의 불 한가운데서 생명의 불을 등장시키는 이 시는 강렬하게 독자의 선택을 재촉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 시민들이 내려야 할 절박한 결단과 성경이 요구하는 결단의 절박성은 대동소이하다. 엘리엇이 요청하는 독자 반응은 성경의 경우처럼 지극히 배타적이다. 에리히 오이에르바흐(Erich Auerbach)가 정확하게 지적하듯이 성경의 진리 주장은 호메로스의 글보다 훨씬 더 “절박할(urgent)” 뿐 아니라 거의 “폭군적(tyrannical)”이어서 모든 여타 주장을 거부한다. 성경 이야기의 세계는 “역사적으로 참된 실재(historically true reality)”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성경 자체가 “유일한 실재 세계(the only real world)”라고 주장한다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다(14-15).

복원된 역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닉되어 있다. 복원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독자가 반응함으로써 완성되지만, 그것을 요청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지고(至高)의 사랑으로 인간을 찾아오신다. 인간의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며, 신의 고뇌를 고안해 낸 자는 “견딜 수 없는 화염의 셔츠를 짠 / 두 손 뒤에 있는 / 낯선 이름(the unfamiliar Name / behind the hands that wove / The intolerable shirt of flame)”(CPP 196)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하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요한1서 4장 8절, 10절)고 선포한다. 지고의 사랑은 신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최고의 사랑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십자가의 “고뇌”를 감수하신 것이다.

이처럼 복원의 현장인 「리틀 기딩」에는 오순절에 임한 성령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의 기저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다. 엘리엇의 모든 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축으로 하여 돌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이제 헬렌 가드너(Helen Gardner)가 말한 대로 『네 사중주』 뿐만 아니라 엘리엇의 모든 시의 주제는 결국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이며, 우리 믿음의 주인이며 완성자이신 그리스도”(184)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인이 서 있는 장소는 이제는 과거의 역사적인(historical) 시공간만이 아니라 이미 신화화된(mythified) 시공간으로 복원되어 존재한다. 이제 이 사랑의 목소리에 이끌린 시간이 신화화되고 과거가 변형 · 갱신된다. 이제 과거의 역사는 “지금이고 영국”으로 신화화된다.<sup>2)</sup> 이 “지금과 영국”은 더 이상 과거의 시공간이 아니라 이미 신화화된 시공간으로 복원되어 존재한다.

그래서 겨울날 오후  
외딴 예배당 안에 빛이 희미해질 때  
역사는 지금이고 영국.

이 사랑과 이 부름의 목소리에 끌려.

So, while the light fails  
On a winter's afternoon, in a secluded chapel  
History is now and England.

With the drawing of this Love and the voice of this Calling.

(CPP 197)

“지금과 영국”이 신화화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인간 조건이 전제되어야 한다. 신화화의 전제조건으로 “삶의 유한한 한계에 대한 심각한 불만족”과 “신의 제한받지 않는

---

2) 신화화란 역사적인 사건이 시공을 초월하여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변형됨으로써 모든 여타 역사적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는 정신분석학이 “서사적 진리”와 “역사적 진리”를 구분하는 것에서 그와 유사한 경우를 볼 수 있다. 정신분석학의 서사적 진리는 결국에는 역사성의 가치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데 이것이 본 논문에서 말하는 신화와 정신분석학의 차이점이다. 여기서는 신화가 반드시 역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영원한 구속적 임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영혼의 집요한 갈망”이 있어야 한다는 크래머(Kramer 14)의 말은 엘리엇이 브래들리에게서 취한 두 가지 원리 곧, “자아 부정”과 “절대자로의 희구”와 같은 원리이다<sup>3)</sup>. 또 이 두 가지 원리는 결국 표리의 관계에 있다. 오거스터스 스트롱(Augustus Strong)이 테니슨에 대해서 한 말, 즉 “가장 위대한 시는 신학적이지만 않으면 안 된다. . . . 인간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가장 위대한 시는 불가능하다. 단순한 인간 사랑만으로는 시인이나 독자 속에 가장 심오한 악기의 현을 전율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 . . . 무한자에 대한 제시가 모든 숭고함과 아름다움의 비밀”(523)이라고 한 말은 엘리엇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결국, 역사의 악몽에서 탈피하는 길로 엘리엇은 시를 통해 “신에 대한 추구”를 형상화하고 있다.

복원된 역사의 모형은 변화산(Mount of Transfiguration) 사건에서 가시화된다. 존 가타(John Gatta)가 『네 사중주』의 각각의 시는 변화산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했듯이 이 변화산은 복원된 역사의 모형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신의 영원은 무시간의 영원으로서 역사가 전형적으로 복원된 이곳에서는 과거와 미래가 없는 영원한 현재만 존재한다.<sup>4)</sup> 『네 사중주』의 중요한 모티프인 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 신화화됨에 따라 우리가 있는 이 장소는 곧 영국이면서 영국이 아니고, 영국이 아니면서 다시 보면 영국으로 형상화한다. 이런 무시간과 시간의 교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며칠 후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변화산 사건에서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변화산 사건이야말로 시간의 복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순간이다. 변화산은 원래 감람산(Mount of Olives)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에서 갑자기 변형되어 옷이 “해같이 빛나고” 얼굴에서 하나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마태복음 17장 1-9절). 가타는 『네 사중주』 전체를 통괄하는 가장 중요한 단일 이미지로서 변화산 사건을 꼽으면서 이 변화산 사건에서 유한한 인간이 성육신을 이해하며 동시에 이곳은 객관적 교리가 개인적 영성으로 변형되는 순간이라고 지적한다(156-57). 마태복음 16장 28절에서 제자 중에 그리스도 자신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선언한 옛세 후, 변화산에서 영광 중에 그리스도께서 변형된 채 나타나시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난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의 모습(요한계시록 20장 1-6절)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한 변화산 위에서의 시간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장소

3) 본고의 성격상 이 내용은 생략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종봉의 「철학적 여정으로 본 엘리엇 신비주의 초월적 성향」, 『T. S. 엘리엇 연구』 11 (2001): 239-60을 보라

4) 루터(Martin Luther)가 말한 대로 영원이란 두 가지 즉, ‘timeless eternity’와 ‘endless eternity’가 있는바 시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은 전자 곧, ‘timeless eternity’이다.

이면서 동시에 이 장소는 재림 때의 시간과 장소를 예표한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택하신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는 최후 승리의 순간이요, 이 순간에 시간은 완전히 변형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극명하게 표현된다.

복원된 역사 세계는 더는 언어가 아니라 비유로 묘사된다. 복원된 역사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언어가 더 이상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비유에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 이 시는 “종결의 해석학”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비유의 차원”으로 계속 나아가간다는 윌리엄 멜라니(William Melany)의 지적은 매우 타당하다(161). 엘리엇의 시에서 “유비와 평행(analogy and parallelism)”이 지금까지 언어가 만들어 오던 “서사나 진행(narrative and progression)”을 대치한다는 옴리 모세즈(Omri Moses 134)의 말은 멜라니의 말과 대체도 동일하다. 이제 우리는 항해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탐구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일 것이며 우리는 처음으로 그곳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탐구를 그치지 않으리라  
그러면 모든 우리 탐구의 끝은  
우리가 출발했던 곳에 도달할 것이며,  
처음으로 그 장소를 알 것이다.  
미지의, 기억에 남은 문을 지나면  
아직 발견치 않은 미지의 땅은  
바로 처음이었던 그곳.

We shall not cease from exploration  
And the end of all our exploring  
Will be to arrive where we started  
And know the place for the first time.  
Through the unknown, remembered gate  
When the last of earth left to discover  
Is that which was the beginning. (CPP 197)

복원된 역사는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의 복원된 모습이다. “우리는 탐구를 그치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기억에 남아있는 문을 지나 최초의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시는 종교적 영역에서 시적 비유의 영역으로 나아간다. 에드워드 허쉬(Edward Hirsch)의 말처럼 종교어는 시적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고, 시적 언어는 종교와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13). 탐구의 결과 순례의 종착지에서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기보다 이 세상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며, 탐구의 최종 종착

지는 우리가 출발했던 그곳일 것이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는 그 장소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가타의 말처럼 우리의 여정 끝에서 우리는 “저 세상에 대한 깨달음 (otherworldly knowledge)”이 아니라 “현 세상의 변형된 모습(transfigured vision of the ordinary)”을 보게 될 것이다(154).

### 결론을 대신하여

엘리엇의 시에 등장하는 시간이나 역사는 구속적인 역사를 지칭한다. 구속적 역사란 독특하게 인류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의 역사로 보는 것이다. 이 구속의 역사는 엘리엇의 텍스트 안에서 변형이 일어나는데 본고에서 고찰하는 「리틀 기딩」에서는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고 복원된다. 구속적 역사에서 최종적인 복원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님이다. 그리고 역사의 복원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결국 구속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으로 성취되는 인간 구원의 역사인 것이다. 「리틀 기딩」에서 인간의 역사는 성령의 불길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복원된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런던을 강타하던 죽음의 불길은 엘리엇의 탁월한 역설적 수사학을 통하여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과 중첩된다. 엘리엇은 독일의 폭격기가 런던 상공을 날아다니는 긴박한 죽음의 순간에 “불로써 불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어느 불熄을 택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재촉한다. 성경이 성경서사야말로 유일한 실재세계라고 주장하듯이 엘리엇의 텍스트는 절대절명의 순간에 죽음의 폭격기와 성령의 비둘기 사이에서 선택할 것을 주문한다. 이리하여 독자인 우리는 선택에 따라서 이 세상의 변형된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 참고도서

- 생명의 말씀사. 『한글 개역성경』. 서울, 1999.
- Auerbach, Erich. *Mimesis: The Representation of Reality in Western Literature*. Trans. Willard Trusk. Princeton: Princeton UP, 1953.
- Bodelsen, C. A. *T. S. Eliot's Four Quartets*. Rosenkilde & Bagger: Copenhagen U Publications Fund, 1966.
- Cook, Cornelia. “Fire and Spirit: Scripture's Shaping Presence in T. S. Eliot's *Four Quartets*.” *Literature and Theology*. Oxford: Oxford UP, 15.1 (1987): 85-101.
- Drew, Elizabeth. *T. S. Eliot: The Design of His Poetr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49.

- Eliot, T. S. *The Complete Poems and Plays*. 1909-1950.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1962. (CPP로 표기)
- Gatta, John. "Four Quartets as Capstone Text in a Literature and Mysticism Course." *Approaches to Teaching Eliot's Poetry and Plays*. Ed. Jewel Spears Brooker.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88.
- Kimball, Roger. "A Craving for Reality." *T. S. Eliot Today*. New Criterion. 18.2(1999): 18-25.
- Knight, Wilson. *The Christian Renaissance: With Interpretation of Dante, Shakespeare, and Goethe, and a Note on T. S. Eliot*. Toronto: Macmillan, 1933.
- Kramer, Kenneth Paul. *Redeeming Time: T. S. Eliot's Four Quarters*. Chicago, New York: Cowley Publications, 2007.
- Marshall, Alan, "England and Nowhere." *The Cambridge Companion to T. S. Eliot*. Ed. A. David Moody. Cambridge: Cambridge UP, 1994. 94-107.
- Melaney, William D. "T. S. Eliot's Poetics of Self: Reopening *Four Quartets*." *Journal of Comparative Poetics*. 22 (2002): 148-67.
- Moses, Omri. "AFFECTING TIME; T. S. Eliot's 'Burnt Norton.'" *Soundings*. Oxford UP. 88.1-2 (2005): 129-51.
- Reinecker, Fritz & Cleon Rogers. *Linguistic Key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chigan: Regency, 1976.
- Strong, Augustus Hopkins. *The Great Poets and Their Theology*.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897.
- Williamson, George. *A Reader's Guide to T. S. Eliot*. London: Thames and Hudson, 1955.